행위는 못 바꿔도 인격은 바꾼다

(이사야 5:1~30)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행위는 못 바꿔도 인격은 바꾼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행위는 못 바꿔도 인격은 바꾼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스러워하며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고, TV에 나오는 국내외 정치인이나 범죄자들이라도 됩니다. 아베 총리나 시진핑 주석 같이 확장적사고로 이웃나라들을 괴롭히는 지도자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국내의 특정 정치인을 극도로 기피하는데 그런 분들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떠올리신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칭찬할만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날마다 독도를 향해 망언을 외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된 지식을 교과서에까지 담아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

음이 항복할 정도로 좋아하게 될 수 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고약하고 못된 사람이어서 괜찮은 사람인데도 싫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러한 전제는 젖혀두고 보편적인 미워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상대방의 못된 짓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미워하던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바뀌기 위한 조건으로써 올바른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 올바른 시도의 첫째 요소가 행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행위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가 아닌 인격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행위는 열매일 뿐입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는다면 열매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격의 변화는 언어나 행위를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격은 결코 수련이나 후회를 통해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행위를 억제하거나 가식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행위가 바뀌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격이라는 나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무로써의 인격이 바뀌면 자연히 열매로써의 행위도 바뀝니다. 그런데 행위를 직접 바꾸려고 하는 것은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억제된 행위는 마치 사과를 따서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바뀌지 않은 열매가 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인격의 구성요소를 알아야만 합니다. 인격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변화를 가하면 됩니다.
인격은 마음에서 '나'라는 의식이 활성화 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연관 지어서 인격을 나무로 비유하면 언어나 생각이나 행위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마음의 공백을 채우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야 말로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는 행동과 추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격은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상을 찾습니다. 그 결과 마음을 채울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첫 번째 대상에게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인격은 그렇게 첫 번째 대상을 믿고 기대하면서 관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포함한 인격의 모습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게 된 첫 번째 대상 이후에 등장하는 대상들은 첫 번째 관계의 대상에 종속되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돈이라면 돈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도 돈을 위해 사귑니다. 결혼을 해도 돈 많은 배우자를 찾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부모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을 자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 자체를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라는 수단을 통해 돈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성이 발달하여 여섯 살만 되어도 벌써 세뱃돈 받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윽고 자라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기를 꿈꾸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 되는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의 질을 결정하고 인격의 나무에서 언어와 생각과 행동이 열매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저마다의 기질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뀔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인격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의식과 마음의 공백이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욕구가 발동하는 단계까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리라 믿어지는 궁극적이고 첫 번째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때에 열매도 바뀝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택하셨고, 그 중에서 또한 남 왕국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는커녕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보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는 일은 없습니다. 들포도가 맺혔다면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들포도 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해해서 심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오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유지되고 있는 한 들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말이 다소 난해합니다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7~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무가 극상품 포도나무 상태를 유지하는 한 들포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면 나무의 상태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나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

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대상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유다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반면에 북 왕국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단과 벧엘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뜻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상번제의 생활화입니다. 즉 마음 채움을 위한 첫 번째 대상으로써 관계하게 되는 세상의 가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첫 번째 대상으로써 관계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율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곧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게 맺힌 열매로써의 행위를 율법과 비교하여 일치한다면, 내 인격 또한 극상품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나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격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번제에서 어린양이 나 대신 죽었음을 통해 세상으로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조차 성전의 상번제를 본래의 의미대로 생활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번제의 의미를 잊은 채 제사를 하나님에 대한 뇌물로 여겼습니다. 마음 채움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세상의 가치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하셨던 유다가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며 강대국 애굽을 열 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감케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그 왕조차 무참하게 만드심을 통해, 하나님만을 마음에서 최고로 여기고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에서 250만 명을 40년간 물과 떡을 제공하셨고, 옷이 해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절대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 관심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복지에서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첫 번째 관심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의 안보나 나라의 부강함이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의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안보나 사업의 안보 인생의 안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유지한다면 세상의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거울삼아 나의 행위를 비교함을 통하여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나는 돈과 권력이 없는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거역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나의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었기에 돈 못 벌고 권력 없는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며 '저 따위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살인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다면, 세상에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범죄나 악행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들포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렇게 율법과 나의 행위를 비교해서 다름이 발견되면 해야 할 일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세상의 가치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러한 나를 상번제의 어린 양과 함께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상번제의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제사의 참 의미를 따른다면 제사법에 얽힌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되시면 극상품 포도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마음의 공백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민인지 궁금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직장동료들이 선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중요한 만큼 그 대답은 한 두 마디로는 어렵습니다. 답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 년이든 십 년이든 기간을 거쳐서 질문하신 분이 스스로 체감함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값집니다. 또한 쉽지는 않

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설교들을 계속해서 들어보신다면, 그 속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만 '선민인지를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굉장한 주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교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자꾸만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유다를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선민 중에서 다시 선민의 폭을 좁혀 가십니다. 처음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선민은 성전을 가진 유다 백성들로 좁혀집니다.
'성전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 중에서도 선민은 추려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모신 자들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서만 나와 만나주시고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성전의 존재 의미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의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로 이끌림은 받은 선민은 250만이었고 그 중에서 장정은 60만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BC.586년에 남 유다가 망하면서 사람들이 죽거나 흩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선민들 중에서 남 유다로 좁혀지고 남 유다 중에서 남은 자들로 가려집니다.
결국 선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안기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지는 못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선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려는 유전죄적 기질을 타고 났습니다. 이러한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것은 남 유다의 백성들이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음에 사업이나 자녀의 형통 등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에서 밀어냄은 들포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들포도에 대한 처사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반복됩니다. 25절 이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들을 멸절시키겠다는 예언까지 나타나는데 선민이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 자는 오직 성전을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행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로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모셔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인격을 유지하며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